

최신 국내 연구동향

편집실

THI 질문지를 이용한 일부 연취급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이 숙 희

(한양대학교 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본 연구는 1977년 東京大에서 개발한 THI (Todai Index) 건강조사표를 이용하여 연취급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연취급 근로자와 비취급 근로자를 중심으로 그들이 호소하는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여 그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수 있는 대책과 조직적인 관리체계와 유해물질에 대한 인식도의 증진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하였다.

1995년 3월부터 1995년 9월까지 서울시내 성동구 및 강동구 소재 연 취급 사업장 근로자들이 응답해준 자료를 IBM-PC 용으로 작성된 THI 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12항목의 척도 득점과 3가지의 판별치를 구하여 비교 분석을 위하여 각 척도에 대한 연 취급 근로자와 비 취급 근로자간의 성별, 연평균값, t-test, Anova-test 를 통해 비교 분석 하여 연취급 근로자의 건강 수준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 사용여부에 따른 THI의 호소정도 차이를 살펴보면, 다호소(SUSY)에서 연취급자가 높은 득점을 나타내어 연(Pb)이 건강에 유해함을 나타낸다고 추정 할 수 있고, 눈·피부(EYSK), 정서불안정(MENT), 우울증(DEPR), 공격성(AGGR), 신경성(NERV)을 제외한 모든척도에서 연취급 근로자가 높은 득점을 나타내어 연취급 근로자가 비취급 근로자보다 건강문제 호소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소화기장애(DIGE), 공격성(AGGR), 신체증상(PSY), 분열증(SCH)에서 연취급 근로자와 비취급 근로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격성(AGGR)에 있어서는 연취급근로자보다 비취급 근로자가 더 공격성(AGGR)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증상(PSY)을 호소하는 점에 있어서는, 비취급 근로자가 더 높은 판별치를 나타내고 있어 신체적으로 건강함을 의미한다.

2. 연취급 여부와 성별에 따른 THI의 호소 정도를 유의성이 있는 결과 들만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호소(SUSY)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높은 득점을 나타내고 있어, 이는 신체적으로 여자가 남자근로자보다 신체적 건강문제 호소가 높은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호흡기(RESP)에서 연취급자 남자근로자 집단에서 높은 득점을 보였다. 생활불규칙성(LIFE)에서도 연취급 근로자와 비취급 근로자 집단에서 집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비취급 남자집단이 낮은 반면에 비취급 여자집단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3. 연취급 여부와 연령에 따른 THI의 호소정도

차이를 살펴보면, 연취급 여부와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이 모든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연취급 유무가 연령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연취급 유무와 근무기간에 따른 유의수준은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연취급 유무와 근무기간과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취급 여부와 결혼여부에 따른 THI의 호소정도 결과를 보면, 공격성(AGGR)의 경우 연취급 근로자의 경우는 결혼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비취급 근로자의 경우는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다. 신경성(NERV)에서 연취급 근로자에게서는 기혼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비취급근로자에게 있어서는 미혼에서 보다 높은 득점을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 결과, 연(Pb)취급 근로자의 구체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는 screening test 용의 설문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급속의 개인 노출정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연취급시에 사용되는 납의종류, 연취급 작업시의 작업장의 연농도, 연취급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화학적 노출지표인 혈중연과 뇨중연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산업보건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직무 만족도

김 윤 정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현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화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성공적인 산업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반면, 현실에 있어서는 산업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유해물질의 등장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업의학이 발전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산업위생학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작업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간호사업은 선진국들보다 약 10년 후인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보건간호사는 이법에 의해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 의존적인 활동을 해오다가 1990년 법 개정 후 보건관리자가 됨으로써 독립적으로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산업보건간호사의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3년 5월부터 6월까지 산업보건 간호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의 산업보건간호사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서를 우송하여 이에 응답한 104명의 직무만족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산업보건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전체만족도는 평균 평점이 3.42이었으며, 자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3.83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업적위치는 3.62, 상호작용은 3.58, 행정은 3.56, 직무는 3.26의 순이었으며, 보수에 대한 직무만족도는 2.71로 가장 낮았다.

2. 전문직업적위치에 대한 만족도는 의무실이 설치된 경우와 산업보건간호사의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3. 자율성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기혼인 경우, 급여가 많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4. 자율성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기혼인 경우, 의무실이 설치된 경우 급여수준이 높을 때와 전반적인 산업보건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5.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기혼인 경우, 근무경력이 길수록, 급여가 많을수록, 산업보건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

6. 직무(과업)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또한 의무실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의무실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산업보건간호사들이 산업보건관리자로서의 자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주들의 관심 및 정책적 뒷받침과 적절한 보수책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Triangulation 방법을 이용한 월경전후기 불편감에 대한 연구

김 정 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여성들이 직장이나 학교를 쉬게 되거나 자주 병원을 찾는 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월경전후기 불편감이며, 월경을 전후한 시기에 범죄율, 사고율, 자살기도율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상당수의 여성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월경 전후기에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고, 한달 중 며칠만 불편감으로부터 자유로와질 뿐 그 나머지 기간에는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겪는다. 이러한 여성들은 그 자신은 물론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과의 관계에도 그러한 불편감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까지도 초래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월경주기와 관련된 불편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므로 그에 대한 간호중재를 개발할 수 있는 기초지식의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월경과 관련해서 불편감을 자각하는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성 111명을 목적으로 편의표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1994년 4월 27일부터 1994년 7월 14일까지 각 대상자에게 월경이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월경 한주기 동안 월경불편감 측정도구(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증상을 매일 기록하고 간단한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각 대상자의 증상변화 모형을 SAS를 이용하여 추세분석하였으며, SPSS PC+를 이용하여 다변량분산 분석으로 연령별, 시기별 불편감의 강도를 비교하였다.

다음 단계로 추세분석에 의해서 구분된 월경전후기 불편감의 유형에 따라서 전형적인 월경전후기 불편감을 나타내는 여성 19명, 전형적인 유형에 속하지는 않지만 월경과 관련해서 주기적인 불편감을 보이는 여성 13명, 전혀 추세를 보이지 않는 여성 2명으로 총 35명을 추출하여 1994년 8월 9일부터 9월 7일까지 준구조적 심층면담을 통해서 월경과 관련된 불편감에 대한 질적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산부인과와 정신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실제 임상에서 월경전후기 불편감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 신념, 의견 등 그들의 관점을 파악해서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보완자료로서 활용하였다. 이들 질적자료는 "Ethnography"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용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월경불편감 측정도구상의 범주별로는 '행동의 변화(27.9%)'와 '통증(21.6%)' 범주가 가장 발생빈도가 높았으며, 문항별로는 '피곤하다(61.3%)' '끔찍하기 싫다(30.6%)' '예민해진다(28.8%)'가 가장 발생빈도가 높았다.

2. 대상자들이 자각한 불편감의 주기성과 정도에 따라서 불편감의 유형을 세가지로 구별할 수 있었다. 배란기와 월경전기, 월경기에 불편감이 나타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세를 보이는 '전형적 추세' 유형군이 38.7%였으며, 추세는 보이지만 전형적 월경전후기 불편감의 조작적 정의에는 부합되지 않는 '비전형적 추세' 유형군이 52.3%였고, 주기에 따른 추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추세 없음' 유형군이 9.0%였다.

3. 이러한 세 집단은 불편감의 정도에 있어서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20대가 가장 불편감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30대, 40대

순이었는데, 이것은 젊은 나이일수록 월경기에 신체적 통증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전형적 추세' 유형군이 '비전형적 추세' 유형군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불편감 점수를 보이고 있었으며 '추세없음' 유형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 추세' 유형군과 '비전형적 추세' 유형군이 모두 불편감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시기별로는 황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4. 질적자료상에 나타난 월경전후기 불편감은 신체적 불편감과 심리적 불편감으로 나눌 수 있었다. 신체적 불편감에는 통증호소가 대표적이었고, 소화기계 불편감도 많이 나타났으며, 부종이나 유방팽만감과 같은 수분축적 문제와, 피부건조나 여드름과 같은 외피계 문제 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심리적 불편감으로 우울증, 불안, 분노, 감정의 기복, 대인관계 불화, 집중력 저하 등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감은 빠르게는 배란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월경전기에 가장 심하게 나타났고, 그것이 월경기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한편 '전형적 추세' 유형군 중 일부 대상자는 오히려 월경기에 전체적인 신체상태가 편안해지고, 피부상태가 호전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심리적 평정상태가 되어 대인관계가 호전되는 등 편안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5. 월경전후기 불편감은 20대에는 신체적 불편감이 주로 나타나고, 30대에는 신체적 불편감이 완화되면서 심리적 불편감이 악화되는데, 이러한 추세는 40대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 외에 피로, 건강상태, 월경출혈과 같은 신체적 요인과 스트레스, 흥분 등의 심리적 요인, 그리고 날씨, 주위환경의 변화 등의 환경적 요인, 기타 음식물이나 약물에 의해서 월경전후기 불편감의 정도나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6. 월경주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각종 불편감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대인관계의 불화를 초래하고, 가사나 직무수행을 저하시키는 등의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대상자들 스스로가 이러한 불편감

때문에 활동, 외출, 운동, 여행을 제한하였고, 목욕, 음식, 의상 등에도 제약을 받고 있었다.

7. 주기적으로 불편감을 경험하는 대상자들은 약물복용, 신체보온, 수면, 운동, 식이조절, 협조요청을 비롯한 여러가지의 개별적인 해결방법으로 불편감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8. 대상자들은 월경에 대해서 귀찮고 불편한 것이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월경이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여성다움의 표현이고, 여성에게만 특징적인 것이며, 생식능력의 특권을 표현해주고, 젊음이나 건강의 척도가 되며, 특별한 기간이라는 긍정적 의미도 부여하고 있었다.

9. 월경전후기 불편감이 여성건강관리에서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산부인과와 정신과 전문의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월경전후기 불편감을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

연구에서 밝혀진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보았을 때, 월경전후기 불편감의 해결방식으로는 신체적인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해주는 생의학적인 모형의 적용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행을 도와줄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방식으로서의 간호학적 중재가 필요하다. 간호사는 일차건강관리의 일환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월경주기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는 여성을 발견해내고 그들에게 건강교육, 정보제공, 운동처방, 식이요법지도 등의 종합적인 자가간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여성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신체적, 심리적 지지와 편안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실천적 간호중재 방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